



Europe

파리지사

한국 농수산물 수호작전 -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

계속 연기되는 브렉시트

10월 19일, 영국 하원에서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브렉시트*의 연장안을 가결하고 존슨 총리가 EU에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10월 29일, 유럽 연합 정상 회의인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EU 탈퇴

| 브렉시트 진행 경과 |

(기준: 2019년 11월 07일)

- 2016년 6월 23일 | 국민투표 가결로 브렉시트 결정
- 2017년 3월 29일 | 영국, EU에 탈퇴의향서 제출
- 2018년 11월 25일 | 영국, EU와 탈퇴협정 합의
- 2019년 1월 15일 | 영국 하원에서 탈퇴협정 승인투표가 부결되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증가
- 2019년 3월 22일 | 브렉시트 1차 연기(2019년 3월 29일에서 2019년 4월 12일로 변경)
- 2019년 4월 11일 | 브렉시트 2차 연기(2019년 10월 31일로 변경)
- 2019년 9월 4일 | 영국,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가결
- 2019년 10월 19일 | 영국 하원, '브렉시트 연장안' 가결
- 2019년 10월 29일 | 유럽 이사회, 브렉시트 연장 결정을 공식 채택
브렉시트 3차 연기(2020년 1월 31일까지)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에도달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상황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 영국이 2019년 10월 19일까지 EU와 합의하지 못하면 2020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

한·영 FTA 발효의 탄력적 예정

2019년 8월 22일, 한국과 영국 정상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공식 서명했다. 브렉시트에 따른 후속조치인 한-영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7월부터 발효 중인 한-EU FTA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교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11월 1일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었다.

① EU 탈퇴 이후에도 무관세 유지

한국은 영국 수출 공산품 전체와 농산물 98.1%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됐다.

② 역내산 원산지 표기 확대

향후 3년간 EU산 원재료를 생산된 제품도 영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EU 경우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③ 기존 지적재산권 규정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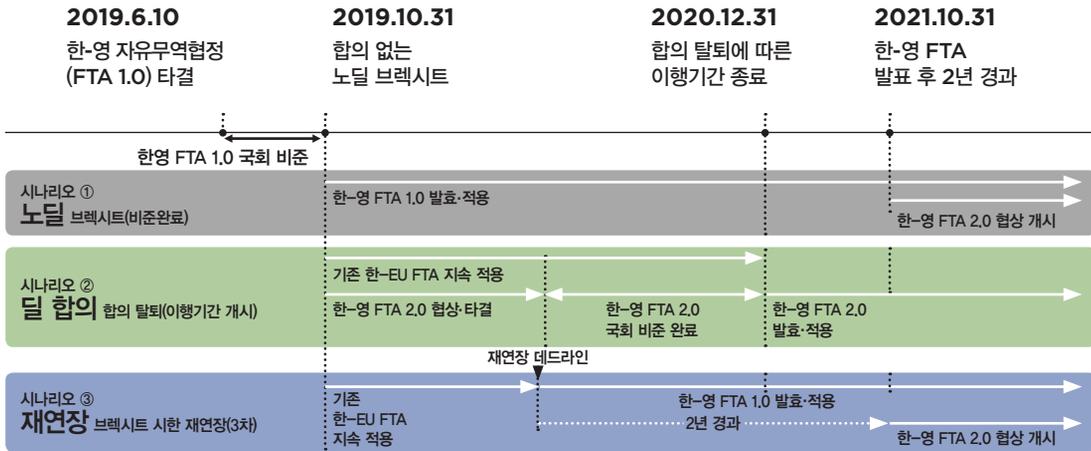
한국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 이천쌀, 고려홍삼 등), 영국 주류 2개 품목(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에 대해 지리적 표시가 인정되었다.

④ 한국 농업 보호조치 시행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의 발동 기준을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사료 수입 시 관세율할당(TRQ)을 초과하는 수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대상

|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정부 대응 |



- *한·영 FTA 1.0 : 한국-EU FTA와 동일
- *한·영 FTA 2.0 : FTA 1.0 발효 2년 후 업그레이드, 한-영 FTA에 특화

한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합의 탈퇴, 브렉시트 시한 재연장의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럽 이사회가 브렉시트를 연장하는 결정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시나리오 ③을 적용하여 내년 1월 말까지는 기존의 한-EU FTA를 계속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한-영 FTA를 발효시켜 적용하게 될 것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환율·수출 전망

외환시장에서는 탈퇴 시점까지 파운드화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당 달러 가치는 2018년 말부터 1.26~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파운드화가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영 FTA로 EU 탈퇴 뒤에도 농산물 대부분에 무관세 혜택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한국 농수산물품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브렉시트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부담 증가 및 소비 위축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수산물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Key
Point

도미노 엑시트에도
주의 기울여야

영국은 브렉시트 선언과 함께 EU 탈퇴를 예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한-영 FTA를 체결했다. 영국의 EU 탈퇴 후 발효되는 이 협정은 양자 간 단절 없는 교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농산물 98.1%에 무관세 혜택이 유지될 예정이다. 영국은 한국의 EU 교역 상대국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한-EU FTA를 통해 두 나라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은 향후 브렉시트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동시에 도미노 엑시트(다른 회원국들의 EU 연쇄탈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한국 농수산물 수출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news.joins.com, www.fta.go.kr, www.bbc.com,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06.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128호, www.consilium.europa.eu